

# 양돈농가들이 말하는 돼지 유통 문제점

〈원고 도착순〉

## 똑같은 돼지가 경매번호에 따라 가격차 커



공 영 수

(본회 양산지부 서부지회)

양돈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양돈인의 건투를 빈다.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기 마련이다. 또한,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으로 시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그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의 유통구조는 생산-도축장(도매시장, 육가공 공장)-식육점(정육, 부산물), 판매점(포장육, 소세지, 통조림 등)-소비자로 되어 있다. 이중 도매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얘기하고자 한다.

도매시장의 문제점은

첫째, 도축작업의 공정성-흔히 말하는 "칼질"로 인하여 생산자, 중간상인, 단체 출하시(도매시장위탁시) 지육율이 각기 다르다.

둘째, 경락가격의 공정성-부산의 2개 도매시장의 경우 1·2차 경락단가의 차이가 크다. 보편적으로 1차 경매단가가 2차 경매보다 좋은 편이다. 즉, 똑같은 돼지라도 경매번호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면 이는 현행 지육경락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셋째, 도매시장 경락가격의

구분-농산물은 상·중·하품 등으로 구분되어 가격이 산출되고 있다. 현 도매시장의 지육 경락단가는 규격돈과 비규격돈이 합쳐져서 일률적으로 최고·최저·평균으로 산출하는데, 도매시장의 지육 평균 가격이 산지가격, 중간상인의 구입 가격, 육가공공장의 생돈 구입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서울3개 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은 규격돈의 지육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최고·최저·평균이 발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경남부산 양돈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도매시장에 출하한 돼지중 지육40~69kg의 평균치를 평균가격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상 도매시장의 불합리한 점을 간략하게 지적했지만, 양돈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생산자가 생산한 축산물은 생산자의 단체에서 직접 도축·가공·상품화하여 직판장이나 판매점 정육점으로 유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

## 도축장 주변의 브로커 농간 없어야...



김 희 수

(본회 대전지부 총무)

우수한 품종과 시설, 환경좋은 곳에서 사양관리를 하여 돼지를 잘 키워냈어도 판매를 잘 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손실은 막대하다. 사실, 돼지 출하시 양축가의 불이익과 손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돈가가 하락하여 바닥시세를 면치 못하는 요

즈음 돼지 출하시 짜증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돼지판매의 유리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그 방법중에는 각각 여러 문제점도 있어 그 문제점을 나름대로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서울3개 도매시장 출하 문제**

- 1 도축전 계류시 엄청난 손실발생(1박 계류시 지육율 2% 감소)
- 2 도축장 주변 브로커들의 농간에 의한 순서 바꾸기(새치기)
- 3 차체 계류시 영업용 차량의 과중한 운임 부담

**둘째, 중간상인에 의한 출하**

**문제**

- ① 대금결제시 장시간 외상 및 신용도 결여
- 2 돼지계량시 저울눈 속임 등의 손실 (필자가 아는 것 만도 십여가지 됨)
- 3 가격이 하락세일때 담합에 의한 돈가 폭락 유도

**셋째, 육가공공장의 출하문제**

- 1 돼지규격의 규제엄격 (유색(有色)불가, 체중미달, 위축돈, 체중초과돈 선별작업)
- 2 회사측에 의한 계량시 엄청난 감량 감수(두당 2~3kg)
- 3 대금결제시 어음 발행
- 4 출하두수 제약(자유로운 출

하불능)

**넷째, 지방도매시장 출하문제**

- ① 지육율 저하(서울과 1~2% 차이, 두·내장 분리 작업시 정밀도 결여)
  - 2 양축농가 돼지와 중간상인 돼지와의 경매가격 차이 심하게 발생(조작 의혹)
  - 3 두·내장·돈피 등 부산물 가격의 저가 (서울보다 2,000원 차이)
  - 4 일별(日別)낙찰가 등락폭이 격심하여 출하시 불안
-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근본적인 유통구조개선을 바라마지 않는다. **■**

## 중매인 제도의 모순점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길...



**엄 원 섭**  
(본회 광주지부장)

도축장의 문제점과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구조의 개선점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 현재 도축장에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잔존하고 있다.

대기업 농장에서는 직원을 도축

장에 상주시켜 감독하게 함으로써 별 문제가 없으나, 영세 양돈농가의 돼지는 하차부터 경락에 이르기까지 상당량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화 시대를 맞아 양돈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돼지

유통에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도축장에서 장시간의 계류로 인하여 지육의 중량이 감소되는 경우가 일반화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이 수년간 지속되므로 인하여 생산자의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정책당국에서는 하루 속히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구역별로 도시 근교에 도축장을 신설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 장시간 계류되지 않고 도축을 함으로써 육질이 양호하고 위생적인 돈육을 생산하여 적기에 공급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과잉생산에 대비한 비축제도를 완비하여야 한다. 이는 수요

공급에 따른 적정가격유지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공히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셋째, 돈육의 등급제는 유통구조의 현대화에 핵심적인 문제이다. 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또한 중매

인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가격의 격차가 심각하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공정하고 안정된 가격을 원하고 있다.

넷째, 경매과정에서 생산자가 수급할 수 있도록 중매인제도의 모순

점을 하루속히 시정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을 이룩하여 한국의 양돈산업이 신속하게 선진국의 양돈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 계류장 시설의 현대화 시급하다



서 정 목

(본회 울산울주지부 회원)

생돈의 시세는 도매시장의 경락 가격을 위주로 형성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가격이 정당하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은 가격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도매시장에서 적정한 시세가 형성된다면 양축가들은 안심하고 더 좋은 고기를 생산하는데 전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현재 도매시장에 돼지를 한 두면 출하해서 그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양성적이 아닌 음성적인 행동과 습관이 도부들의 몸에 익혀 있고, 경매사의 자질문제, 중매인의 폭리, 계류사의 양심, 회사 경영문제 등 여러가지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수탁자가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수탁자가 입는 피해가 크면 클수록 생돈시세는 낮아질 것이고 전국 양돈인이 입는 피해는 엄청난 액수일 것이다.

수탁된 두수중 소비수요에 따른 적당한 도축, 두수에 관계없이 수탁 받는 대로 도축하는 경우 등 두가지가 있다. 이것은 생산자에 장·단점이 있어 복잡하고, 도매시장의 기능이 불합리하여 생산자가 입는 피해가 큰 이유 몇가지나마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계류장 시설의 현대화가 어렵다. 24시간 이상 계류하는 현시점에서 좁은 공간에 누워 잠잘 틈새도 없이 넣어 사돈 발생이 너무도 많고, 급수시설이 없어 지육 감량이 많다.

또한 계류시설이 모자라 차상 계류의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계류사와 특정인이 짜고 돼지를 바꿔 도축하는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 특히, 단협·축협의 계통출하분은 축주가 오지 않으면 표를 확실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도축과정에 문제점이 많다. 도축하는 과정에서 축주가 지키면 머리를 크게 자르고 지키지 않으면 목살을 도려내는 절도행위이다. 낭심을 도려낼 땐 또 한 줌의 살이 잘려나가고, 어떤 도매시장에는 작업장 출입을 금지시키는 곳도 있다. 그것도 모자라 지육 계량은 계량사 혼자만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곳도 있다.

셋째, 경매사와 중간상인의 속임수가 많다. 무엇인가 알아 들을 수 없는 해괴망칙한 소리로 경매를 보는 경매사, 이것을 보도라면 기록하는 기록사와 경매사 중매인이 짜고 하는 속임수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들 수도 있다. 어떤때는 책 읽어 나가듯 아주 빠른 속도로 경매를 보는 특등 경매사 자격을 과시할 때도 있다. 예를들면 지육을 보고 가격을

쓰기도 전에 미리 낮은 가격으로 써서 들고있는 중매인에게 낙찰되는 행위는 경매사와 중매인이 짜고 하는 비리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넷째, 경매가격의 폭이 너무 심하다. 1차 경매나 2차 경매냐에 따라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는데, 비싼 것은 남에게 주고 싼 것은 자기 식육점에 넣기 위해 중매인들끼리 짜고 폭리를 취득하는 행위가 너무 많다.

특히, 경매사에게 부탁하는 중매인들은 돼지상인과 중매인이 짜고

낙찰 단가를 높이는 행위이다.

다섯째, 돼지 부산물, 이중으로 계약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회사 경영의 애로점 때문에 중매인의 수고비조로 부산물값을 이중으로 계약해 수탁자 것을 빼앗아 중매인에게 돌려주는 행위 등은 생산자와 소비자中间的 위치를 모르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작태라고 할 수 있다.

일부 특정인들은 자기들만의 폭리를 위해서 법을 무시한채 행패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정부당국은

아는지 모르는지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식은 선진국이고 육류 소비량은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말을 떨쳐 버리도록 도매시장의 기능이 깨끗하고 청렴하게 되어 생산자는 마음놓고 출하·수탁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깨끗한 고기를 부담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책임 관련자는 하루빨리 개조하여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

## 도축장 정문의 소독조 시설 설치 시급



이 정 호  
(본회 부안지부 총무)

요즈음, 장기간의 양돈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전국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오제스키병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던 차에 설상가상으로 이상구 파문까지 겹쳐 악재에서 허덕이는 우리 양돈인들을 더 없이 슬프게 하고 있다.

이러한 주위의 조악한 여건속에서 먼지와 역겨운 냄새도 마다 하지 않고 우리 양돈인들의 피와 땀으로

기른 정성의 산물인 돼지를 판매함에 있어 판로 및 유통상의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중간상인에게 판매하자니 농간을 부리는 것 같아 비위에 거슬리고, 그렇다고 인접한 도축장에 판매하자니 지역적인 관계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한계의 벽에 봉착하게 된다. 궁여지책으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도축장을 찾아가니 거기에도 어려움은 많이 내재해 있다.

영업용 자동차를 용차해서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은 수송비의 절감을 위한 편법으로 협소한 차량에 실로 성냥개비 켜듯이 돼지를 싣고 때문에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보겠다는 소박한 꿈도 같이 싣고 한양 천리 멀다 않고 부지런히 달려서 이속고 고속도로 서 울 톨게이트에 당도하면서부터 그동안 꿈에 문혀 잠자던 서글픔이 되살아난다.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내밀면 통행권을 회수하는 도로공사 아저씨 기동 좀 보소! 결코 향기롭지 못한 돼지 냄새가 역겨우니 빨리 지나가라는 듯이 순만 창밖으로 짝끔 내민채 고개를 돌리거나, 심하면 표를 받자마자 날렵하게 장문을 달아버리는 비정한 인심을 뒤로 하면서 내뱉는 독백 한 마디 "저 사람은 돼지고기도 안먹고 사나?" 이런 웃지 못할 일

들은 도매시장에 돼지를 출하하기 위해 왕래하다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었던 혼란 일이다.

막상 찾아간 도축장에도 구조적인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계류시설의 절대 부족현상으로서 계류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도축장의 경우, 가까이는 경기도에서부터 멀리는 제주도까지 돼지가 출하되고 있다. 거리의 원근에 관계없이 협소한 차량에 뺨뺨하게 싣고 간 돼지를 계류시설이 절대부족한 관계로 차상 계류상태로 쫓겨는 하루에서 홍수출하가 이루어질 때 길게는 사나흘까지도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상태로 대기하노라면, 푸대접도 지나치다는 원망이 앞선다. 또 동절기의 눈보라와 추위는 물론이거니와, 한여름의 이글거리듯이 작열하는 불볕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차광망 시설이라도 설치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체온조절을 하지 못해, 거친 숨을 헐떡거리며 급기야는 몸부림치다 차상 계류중에 죽어가는 돼지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쯤 되면 양돈가의 심정은 안타까움의 한계를 넘어 분노로 치닫게 된다. 몸부림치는 돼지를 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찬물이라도 끼얹어 주고 싶은 것이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인지상정일진데, 찬물이라도 마음대로 쓸수 있는 살수시설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때묻은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보자고 서울까지 먼

길 마다 앓고 와서 돈 더 받기는 커녕,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는 돼지를 죽이다니? 양돈인에게는 이걸, 분명히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으며, 아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더구나 아연실색할 일은 도축장 주변을 돌아 다니며 죽은 돼지만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의사는 초상이 자주 나아 성업이런가? 10여만원에 상당하는 규격돈 한마리에 단돈 오천원이라나, 어이없고 기가 막히지만 자가용 자동차가 아닌 바에야, 다시 싣고 내려올 수도 없는 처지인지라(쓰레기 청소도 할겸)?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처분하고 나서,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서서 하는 말, X×끼들!

아무튼, 위와같이 죽은 돼지 수집자와 양돈가 사이에 희비가 교차하는 상황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도축장에서는 양돈인과 더불어 공존한다는 의식과 차원에서 충분한 계류시설의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과 배려가 선행된다면, 요즘 양돈가들이 겪는 가슴아픈 일중의 일부라도 해소되거나 아니면, 극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 도축장의 방역관리체제의 확립이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근래에 들어, 방역과리에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오제스키병을 위시해서 기타 전염병들이 전국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양돈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많은 농장으로 부터

수많은 차량 및 돼지가 빈번하게 출입하고 있는 도축장이 요즘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한 상황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온갖 병원균을 짧은 시간내에 광범위하게 확산시킬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도축장에서는 종래의 형식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양돈농가에 대한 서비스 및 방역체제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서 양돈인들이 신선하고 위생적인 돈육을 생산·공급하는데 차질을 초래하지 않음으로써, 항구적인 양돈산업의 발전에 일조한다는 사명감과 양돈업의 발전과 더불어 도축장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아울러 발전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정립하여 도축장 정문의 소독조의 시설개선과 돼지를 하차하고 정문을 빠져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조를 이용한 바퀴소독과 병행해서 별도의 차체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하면 좋겠다.

아무쪼록 엄습해 오는 어려운 여건과 앉지도 서지도 못할 불편한 처지이지만, 돼지가 있기에 꿈을 먹고 사는 지극히 소박한 양돈인들의 굳게 닫힌 가슴들이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훈훈한 춘풍에 실려 양돈경기 회복의 꽃이 만개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끝으로 우리집 돈순이의 이상구 씨에 대한 불만의 강물도 하루빨리 마르기를... 